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40 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40 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일민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채널	40 출발 드림팀 시즌2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실화극장 그날(재)	00 KBS네트워크특선 2014 감자콘서트	50 VJ특공대(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12 4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요말		00 MBC 정오뉴스 20 문화 4색	00 SBS 뉴스 45 닥터 365 55 신한국비경(재)
1 40 김부자의 뉴스통	00 2014 트로트 대축제(재)	00 송년기획 2014 대한민국 연예계(재)	05 TV속의 TV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스페셜 10 황금의 펜타곤 시즌2(재)		05 내꺼야 목록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00 네트워크현장 고항이 보인다
3	00 KBS 뉴스 10 생명최전선(재)	00 꼬마신랑 콩도령(재) 30 자동차 공부책상 위키	05 아하 동물탐험대(재) 55 아동용 동화나라	00 SBS 뉴스 10 어린이 뮤지컬 실루의 우주대모험
4 0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시사진단 55 튜튼 생활채널	00 TV 유치원 공다공 30 애니월드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30 변신자동차 또봇
5 00 하중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 지오캐피	00 외계가족 줄리줄리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 뉴스 30 세상에 4기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정미>
8 20 갈때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0 1대100	55 2014MBC 연기대상 1~2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4 SBS 연예대상 1~2부
9 3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TV동화 빨간 자전거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알라>	00 월화특별기획 <오안과 편견>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러브인 2014 스포츠 대한민국이 사랑한 별들의 이야기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2 10 나는 몸신이다(재) ①:20 TV주치의 닥터 지·바·고(재)	30 국악한마당 ①:20 KBS네트워크 사람들 45 뉴턴의 사과나무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①:35 영상앨범 산재	25 라디오스타 스페셜 ①:45 MBC 플러스특선 쇼 챔피언	35 나이트 라인 ①:05 KBC 열린토론회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극한직업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20:40 다큐 오늘
07:00 코코몽2(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테마기행 <낯선 시간으로의 초대, 요르단>
07:15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1:20 세계테마기행 <중국한시기행6>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보잉	21:50 EBS 다크프라이드 <인텔스 5부 살아남은 자의 슬픔>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재)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리얼극장 어머니
08:00 당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곰피와 친구들(재)	22:50 세계 전문록 아틀라스 <100세 천중 장수촌을 가다, 이카리아>
08:20 두다다공(재)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05 지식채널e(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4:10 EBS 인문학 특강
08:50 곰피와 친구들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05 원더볼츠(재)	14:10 스포츠 웨어어 놀자	17:45 두다다공	
09:20 출동! 슈퍼맨즈(재)	14:30 부릉! 부릉! 부루미즈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4:45 코코몽2	19:00 지파이터스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종현, 윤선영의 국어>	12:10 2016 수능개념 <윤선영의 영어>
00:50 <오광석의 수학 I>	13:05 <윤정환의 영어>
01:40 <오랜지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2:30 수능길잡이 <문학>	14:50 <주혜연의 영어>
03:20 <수학 I>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4:10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유종현, 윤선영의 국어>
05:00 <영어독해 구분·유형>	17:20 <오광석의 수학 I>
06:40 <박근영의 미적분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7:30 <차현우의 미적분II>	19:20 <최은진의 수학 I>
08:20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00 <김소연의 수학II>
09:10 <독서와 문법>	20:50 <주혜연의 영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준의 국어>	21:50 수능길잡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최은진의 수학 I>	22:50 리얼체험 탐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00 2016 수능개념 <주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한국어 능력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7:30 전철한 수학 익힘풀이 5-2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0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5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중차병방>
08:30 검정고시대비 강좌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2
09:00 출가운 수학 EBS MATH	18:00 중학예비과정 <수학 ③>
09:10 중학예비과정 <국어 ①②>	18:40 <영어 ③>
09:50 <국어 ③④>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수학 ①>
10:30 <영어 ①>	20:00 EBS 기획특강 <수학 ②>
11:10 <수학 ②>	20:50 EBS 기획시리즈 <국어 ⑤⑥>
11:50 <국어 ⑤⑥>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영어 ②>
12:30 <영어 ②>	22:00 중학예비과정 <국어 ①②>
13:10 중학 m포스 수학1	22:40 <국어 ③④>
14:30 중학 m포스 수학2	23:20 중학 e포스 영문본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24:0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0일(음 11월 9일 乙亥)

子	36년생 예상보다 더 초과적이다. 48년생 납득할 수 있으리라. 60년생 적응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엉겁결에 받아들였다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 84년생 중차대한 일이나 가법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4, 09
丑	37년생 합하다보면 큰 힘이 될 것이다. 49년생 감동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61년생 전혀 별개의 일이나 따르므로 인식해야 옳다. 73년생 작은 은성 속에서 큰 인연을 맺게 되리라. 85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15, 01
寅	38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50년생 일상의 평이함 속에 귀중함이 있다. 62년생 서두르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74년생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고. 행운의 숫자 : 33, 04
卯	39년생 매우 중요한 일이나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느니라. 51년생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야 무리가 없다. 63년생 아무도 개입시키지 말고 혼자 처리하는 것이 제일 낫다. 75년생 불합리한 권 어치워라. 행운의 숫자 : 42, 67
辰	40년생 길사가 발생하려는 징후가 역력하다. 52년생 가까운 곳에 있는 이와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64년생 불련함을 내색하지 않고 있는 이가 보인다. 76년생 정도의 차이가 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52
巳	41년생 대리인을 시켜도 무방 하느니라. 53년생 우연한 행운이 따를 것이다. 65년생 원리란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다. 77년생 조짐을 방치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75, 43

午	42년생 그럴듯한 겉모습에 현혹되면 완전히 오판하게 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54년생 행동에 주의력이 필요한 때이다. 66년생 거 의 다 되리라가 틀어지겠다. 78년생 행로가 막혀 있으니 우회해 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8, 84
未	43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내어야 할 단계에 있다. 55년생 제대로 의사 표시 해야겠다. 67년생 찾아 있던 습관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느니라. 79년생 현안 문제의 해결이 급하다. 행운의 숫자 : 96, 30
申	44년생 중첩할 수 없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자. 56년생 눈에 보이더라도 지금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었다. 68년생 원만 하게 처리 할 수 있어야겠다. 80년생 많은 이들과 관련되면서 복잡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5, 21
酉	45년생 기대 했던 바가 파기되거나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는 처 지이다. 57년생 경제성과 실용성을 따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 69년생 중간 점이 절실해 요청되는 형세이니라. 81년생 지극 히 희귀한 사실과 접하라. 행운의 숫자 : 03, 64
戌	46년생 오랜 세월을 두고 고민해 왔던 걱정거리를 잊게 될 것이 다. 58년생 중요시 해왔던 것으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 70년생 뜻이 맞지 않아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 82년생 개의 치 말고 수용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12
亥	47년생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지경에 이르렀 다. 59년생 집착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부르리라. 71년생 정신이 아찔할 수도 있다. 83년생 한 가지가 늦어지면 만사가 지연될 수 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3,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성공 포인트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슈퍼맨이 돌아왔다’ 강봉규 PD

지난 27일 밤 열린 2014 KBS 연예대상은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독무대였다. 소오라부부 남자 최우수상(추성훈), 인기상(이하루, 추사랑, 이서연·서준, 송대환·민국·만세), 프로듀서 특별상(이휘재, 송일국), 작가상(김정선)에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 프로그램상까지 5관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아빠들이 엄마 없이 아이와 생활하면서 겪는 일들을 보여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해피선데이’ 또 다른 코너인 ‘1박2일’과 함께 일요일 안방극장을 장악한 지 오래다. 프로그램 연출자인 강봉규 PD는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이 평소 정말 큰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데 시청자들이 손수 뽑은 프로그램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 영광을 출연한 아빠들에게 돌린 강 PD는 미안함도 크다고 전했다.

“아빠들이 48시간 아이를 돌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거의 편집되지. 방송이 계속되다 보니 아버지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반복되거든요. 시청자들도 아빠들이 고생하는 부분보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을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빠들이 고생하는 모습은 속 빠지다 보니 아빠들이 어디 나가셔도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도 못하죠. 그래서 더 미안해요.”

현재 출연 중인 아빠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사랑을 둔 파이터 추성훈과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아버지 배우 송일국, ‘이바람’에서 쌍둥이 서연·서준 아빠로 탈바꿈한 방송인 이휘재와 묘하게 매력적인 딸 하루의 아빠 가수 타블로 등 4명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육아 예능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제작진은 작년부터 프로그램 초창기만 해도 캐스팅에 정말 애를 먹었다.

“우리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자녀만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 나아가 가족관계까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겠다고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캐스팅하기 어려웠어요. 출연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어려웠죠.”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에는 섭외가 좀더 수월해졌다. 강 PD는 “실용화된 방송을 본 사람들로부터 함께 해도 되는 제작진이라는 믿음을 얻은 것 같다”면서 “끝없는 신뢰가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섭외 과정은 녹록지 않다. 새해부터 타블로-이하루 부녀에 이어 딸 지은과 함께 투입될 엄태웅 측에도 지난 7월 출연 제의를 했으나 연말이 돼서야 성사됐다.



제작진이 캐스팅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평소 아빠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강 PD의 설명이다.

송일국과 삼둥이 부자는 ‘삼둥이’라는 상황만으로도 너무 특이해서 낙점했다고.

강 PD에게 연출의 제일원칙을 묻자 “그냥 뇌두리”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강 PD는 “아이들이 주인공이다 보니 촬영 때 예측 못 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서 “당황할 때도 적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럴 때 보여주는 천진난만함, 예상치 못한 반응, 그것이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랑받는 힘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강 PD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했다. “아이들이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말인데 아이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줬으면 해요. 아이들과 함께 본다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아이들은 정말 모두 천사 같거든요.”

유쾌한 ‘자식 개조 프로젝트’ 통했다

KBS ‘가족끼리 왜 이래’ 시청률 40% 돌파

KBS 2TV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사진)’가 28일 시청률 40% 벽을 넘어섰다. 29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가족끼리 왜 이래’는 전국 시청률 41.2%, 수도권 시청률 42.2%를 기록했다. 올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 시청률 4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막을 내린 KBS 2TV ‘왕가네 식구들’에 이어서 두 번째다.

‘왕가네 식구들’과 ‘가족끼리 왜 이래’ 모두 정면대결하는 경쟁작이 없는, 토~일 오후 8시 황금시간에 방송되는 KBS 2TV 주말극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프리미엄이 있지만, 이 시간대 드라마도 시청률이 10~20%까지 추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왜 이래’의 선전은 눈에 띈다.

특히 ‘왕가네 식구들’이 인기와 비례해 사회적으로 비난도 거세게 받았던 막장 드라마의 대표주자였다는 점에서 막장 요소들 모두 견어낸 ‘가족끼리 왜 이래’의 인기는 방송가 안팎으로 반가움을 전해준다. ‘가족끼리 왜 이래’는 출생의 비밀, 불륜, 음모, 복수 등이 고루 들어가야 관심을 얻는다는 최근 드라마 성공 공식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주인공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클리셰(진부함)’가 있기는 하지만 그외에는 유쾌, 상쾌하면서도 가슴이 찡한 이야기로 온가족이 볼 수 있는 주말드라마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드라마는 일찍 사발하고 홀로 3남매를 키웠던 헌신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차순봉(유동근 분)이 그린 3남매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낱알이 이어져서 전대미문의 불효소송을 제기하는 이야기다. 차순봉은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돈에 치여살거나 심지어는 가족을 뒤로하고 신분상승을 꾀하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 차순봉이 알고보니 위암 말기로 3개월의 시간만 허락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소 신랄로 흐르고는 있지만, 드라마는 소송을 계기로 뿔뿔이 흩어졌던 자식들이 시간만 나면 대화하라는 명목하에 얼굴을 맞대고 그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가족의 울타리와 의미를 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내고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마지막 시간을 자식들과 함께 하고 싶은 차순봉의 절절한 부성애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자식들의 애끓는 슬픔,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늦게나마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사랑이 ‘가족끼리 왜 이래’를 끌어가는 힘있는 동력이다. 드라마는 또한 차순봉을 중심으로 문대

오(김용건)와 권기찬(김일우)이라는 다른 두 아버지의 모습도 조망하면서 그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그 무게는 같은 여러 부성애를 그리며 오묘한 캐릭터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강은경 작가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여윈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 드라마를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28일 방송에서는 차순봉이 자식들에게 제시한 6번째 소원으로 클럽댄스 파티가 열렸다. 참석자 모두 교통차임으로 참석해 근심걱정을 잊고 즐겁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펼쳐졌다. 드라마는 인생을 정리해가는 아버지 차순봉의 버킷리스트를 워트 있게 하나씩씩 그리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이래’를 보여주며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한편, 28일 방송된 다른 드라마의 시청률은 MBC ‘장미빛 연인’ 19.2%, ‘전설의 마녀’ 26.1%, SBS ‘미녀의 탄생’ 5.7%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